2대리구 자인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대구주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사순 제5주일 2022. 04. 03. **(다해)** 제2315호

제1독서 이사 43,16-21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2독서** 필리 3,8-14 **복음환호송**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 8,1-11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발행인 | 조환길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편집** | 문화홍보국 **등록** | 2017. 11. 13 대구 다04660 **전화** | (053)250-3048~9 **이메일** | jubo@dgca.or.kr **홈페이지** | www.daegujubo.or.kr

가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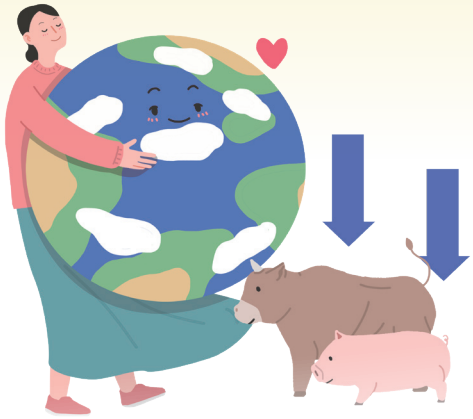
일심재활원 원장 | 전상규 베르나르도 신부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요한 8,1-11)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답변하는가에 따라 올가미를 씌워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라 한다면, 간음하다 들킨 남자는 물론 여자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신명 22, 22)을 어기게 됩니다. 반대로 율법대로 처벌하라 한다면, 죄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던 분이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간음한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지라 하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가 버렸습니다. 하느님 앞에 죄인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야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 자신들의 한계와 죄를 알고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상대방 남성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혹시 돌아간 그 군중 속에 상대방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 복음은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이웃에게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죄와 무관한 예수님은 왜 단죄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섰던 한 여인의 삶의 고통과 무게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인이 처했던 열악한 조건도 훤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약하디 약한 인간 현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 앞에 섰던 여인이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매사에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인간에 비해 하느님의 사랑은 이처럼 훤히 아시면서도 침묵하심을 통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느님, 우리 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언제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느님입니다. 나도 알고 있는 나의 잘못에 대해 누군가 침묵으로 대해 줄 때, 그 침묵은 용서의 다른 이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에는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금육(金肉) 말고 금육(禁肉)!

교구 문화홍보국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생태적 회개입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실이 그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17항)

어느덧 사순시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때에 공동의 집을 돌보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할 노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사순시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의 산불은 대자연의 경고인 기후위기의 힘을 보여준 엄청난 국가적 재난이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 바로 온실가스입니다. 특히 가축을 기르느라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량의 18~20%를 차지합니다. 직간접적인 배출을 고려해 보면 거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단일 산업 영역으로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가축과 경작지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배출량이 2070년경에는 현재 수준의 2배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구 평균 온도가 섭씨 2도 이상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전보다 70%나 육류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육류 섭취를 줄인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뿐 아니라 식량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곡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곡물 중 1/3이 가축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지구에는 기아로 시달리는 8억 명 이상의 인류가 있습니다. 이 사료를 인간을 위한 식량으로 전환하면 20억 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지난 2020년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을 맞아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특별 사목 교서 실천 지침’에서도 육류 중심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우리 식단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음식일지라도 육류 소비로 미치는 지구 환경 파괴를 생각한다면 고기 섭취를 줄이는 노력은 인류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단식과 금육을 의무로 규정하여 자선과 연결시켜 공동체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이제는 자선을 넘어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불금의 영향 탓인지 연중 금요일 재를 ‘금(金)요일은 육(肉)식 하는 날’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금육(禁肉)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행복하려면 우리를 마비시키는 특정한 욕구들을 억제하는 법을 알고, 삶이 주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23항)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루카 10,7)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 손복경 에디타 수녀

깨달음은 하늘에 흰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어렴풋이 그러나 강렬하게 울린다. 이 울림은 삶을 변화시키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하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긷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긷듯이” ‘주어진 일상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책들이 공통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현재를 살라’, ‘주인으로 살라’는 것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수도 생활이다. 그것이 전부다.

오랜 시간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나는 현실과 상황에 순명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주어지지 않은 것’을 애타게 추구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이다. ‘주어진 것’인지 ‘주어지지 않은 것’인지를 살펴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이 피하고 싶은 것이어서 거절하고 싶다면 “네.”하고 받아들이는 시늉부터 한다. 나는 이것을 ‘순명’이라 한다. 이 순명은 ‘나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이 순명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느님 은총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희박한 희망에 올인하는 도박 정신. 바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돼라.’ 정신이다.

이런 정신을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구나.”라는 상황과 당신이 가진 생각, 계획 속에서 갈등한다. 구세주도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계획을 버리고 바꾸면서 하느님의 때를 찾으신다. ‘지금인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확신에 차 말한다. “물독에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루카 10,7)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간다. 내 앞에 주어져 있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이 순명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신앙고백이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수도자들이 순명할수록 감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명할수록 감사의 체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은 순명을 통해서다. 순명은 수도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에제키엘 2,8)

드망즈 주교의 일기

대구에 도착한 드망즈 주교

1911년 6월 26일 월요일

오늘 아침에 급행열차 편으로 서울을 출발했다. 역까지 배웅 나온 뮈텔 주교와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의 착좌식을 위한 서울교구 대표인 드브레(Devred, 兪世俊) 신부와 시잘레(Chizallet, 池士元) 신부가 대구까지 동행했는데, 대구에는 오후 3시 45분에 도착했다. 우리가 기차 안에서 내렸을 때, 줄리앙(Julien, 權裕良) 신부와 소세(Saucet, 蘇世德) 신부, 카넬(Canelle, 簡弘模) 신부, 김 요셉(金紋玉) 신부, 그리고 김 베드로(金命濟) 신부가 있었다.

나는 대합실에서 예식용 망토를 입고 역 광장으로 가서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군중들에게 주교강복을 주면서 광장을 한 바퀴 돌았다. 본당까지의 행렬은 엄청났으나 질서정연했다. 성당으로 가는 길 전체가 장식돼 있었다.

나는 우선 주교댁으로 임시 세낸 집에 들어갔다. 거기서 주교 중백의를 입고 본당의 바깥문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흰 제의를 입고 로베르(Robert, 金保祿) 신부가 주교 영접 예식에 따라 나를 맞이하였다.

중앙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 영성체 난간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앉아 주교관을 쓰고 주교 지팡이를 짚고 성당을 가득 채운 군중들에게 간단한 연설을 했다.

이어서 나는 선교사들로부터 순명(順命)서원을 받았고, 영성체 난간에 무릎을 꿇은 교우들에게 주교반지를 친구(親口) 시켰다. 주교 강복으로 이 첫 번째 의식을 끝맺었다.

저녁 때에는 아주 활기가 넘치는 멋진 학생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장식 조명을 켜고 폭죽을 터뜨렸다. 나는 10시에 자리를 떴다.

6월 27일 화요일

주교좌 성당이 된 루르드의 성모 성당에서 첫 번째 미사를 드렸다. 학교 학생들을 접견한 후에 관청들을 방문했다.

▲ 교구장 착좌식을 마친 후 성당을 나서는 드망즈 주교(1911.6.11.)

6월 28일 수요일

내가 어제 방문한 사람 중 여러 명이 나에게 답례 방문을 했고, 오늘 나는 해야 할 방문들을 모두 끝냈다.

6월 29일 목요일

나는 베르모렐(Vermorel, 張若瑟) 신부를 부주교로 임명하고, 선교사들의 권한을 공포하는 첫 번째 회람(回覽)을 발송했다. 건강이 나빠서 두 달 전에 서울로 가야 했던 로베르 신부는 몸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홍콩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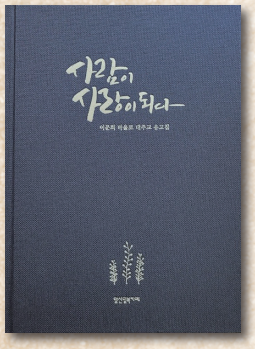
6월 30일 금요일

드브레 신부와 시잘레 신부가 서울로 되돌아갔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53. 사랑의 결실 ⑤

우리는 우리 저마다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자녀의 정체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는 언제나 생명은 우리가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도록 합니다. "넷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도록 요청합니다(탈출 20,12 참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명예롭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창세 2,24 참조) 하고 말씀하십니다. 일부 혼인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는 많은 것을 감추고, 대신에 그것을 자기 부모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신뢰와 대화를 증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기쁨」 188~190항)



사람이 사랑이되니—

이문희 지음 | 200면 |
12,000원 | 앞산밑북카페

故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 유고집 출시 판매

대구대교구 제8대 교구장이셨던 故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의 선종 1주기를 맞아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은 시와 미발표작, 일기와 강론, 에세이 등을 묶은 유고집이 나왔습니다.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내가 버리는 생활 쓰레기 목록을 일주일간 적어보며 줄여나가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대구주보 말씀 맞히기 정답 (사순 제3주일 대구주보 4면 말씀따라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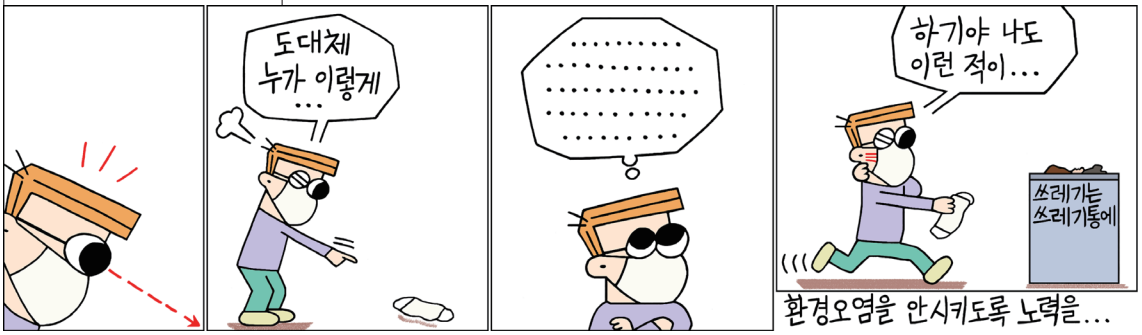
1. 고향, 친족, 아버지의 집 2. 5번 3.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말씀의 해 안내지 64호 정답

1. ① 2. 주님의 날 3.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4.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

나부터라도 다시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4월 4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9일(토) 10:00 월성성당
복음선교후원회 후원미사	4월 4일(월) 11:00 성모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4월 9일(토) 10:00 앞산밑북카페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	-

수도회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4.10(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4~40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 장소: 서울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원하는 곳
문의: (010)7731-4521
ofmkvocation@gmail.com

성주간 간헐적 단식 피정

기간: 4.10(성지주일)~17(부활절)(7박8일)
참가비: 800,000원 / 인원: 20명
지도: 문봉한 신부(성모솔숲마을 촌장)
문의: (010)5613-0166

도미니코회봉쇄수도원 성삼일 피정

일자: 4.14(오후)~17(오전)
대상: 만 35세 미만 여성
문의: (010)6561-2906 / (043)651-2906
http://www.dominicocorea.com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
성지순례: 4.9~12 / 4.23~26
자연순례: 4.18~20 / 4.29~5.1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제주 성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시간
날짜: 4.10~12 / 4.19~21 / 4.24~26 /
4.30~5.2 / 5.6~8 / 5.10~12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4.30~5.1 / 6.11~12
3박 4일: 4.7~10 / 5.5~8
8박 9일: 4.20~28 / 5.11~19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교구 외 | 기타 알림

사제와 함께하는 문경성지순례

일시: 매주 (수) 11:00~17:00
일정: 마원성지, 여우목성지, 진안리
성지, 한실성지 (미사, 점심제공)
문의: (010)9944-0145
(주일도 가능, 사전 연락요망)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세대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이영국 비뇨기과
전립선 | 방광질환
요로결석(내시경술)
비뇨기과 전문의/원장 이영국(안드레아)
T 053-629-0077
감삼역3번 출구 감삼스퀘어 6층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문의 053)250-3158, 252-5392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의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궁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바른동물의료센터
▶ 365일 24시간 진료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42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까) 053-571-007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서정길(요한) 대주교
  1987년 4월 7일
- 이윤걸(토마스) 신부
  2000년 4월 9일

교구 | 대리구 알림

온라인 가정특강 안내

일시: 4.4(월) 10:00
주제: 치매 길들이기
시청: 가정복음화국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 강사: 권 노엘라 수녀
문의: 가정복음화국, 250-3077

노년을 위한 토빗 피정

일시: 5.11(수)~12(목)
장소: 한티피정의집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4.28(목) / 신청비: 6만 5천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기관 | 시설 | 단체 알림

무료병원 성심복지의원 후원 모집

어려운 이웃들의 무료진료에 필요한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069-10-003259
문의: 256-9494

바오로딸 영성프로그램

4월 한 달 한 책 깊이 읽기:
4.8 / 4.22 (둘째, 넷째 금 14:00)
황혼속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기)
4.26 (매주 화 14:00, 6주 과정)
문의: 바오로딸, (010)6681-518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수강생 모집

서양화, 오카리나, 칼림바, 발성법, 난타, 고전무용, 장구, 사군자문인화, 캘리그라피, 우쿨렐레,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신앙여정, 정리수납전문가 / 신청: 254-6115

전인병원 조리원 채용

장소: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7
자격: 경력 무관, 해당직 유경험자 우대
문의: 670-5881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신매동)
일반검진, 5대 암검진
문의: 790-0660(8:30~17:3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주말

388차: 4.22(금)~24(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가능

대구대교구 운전기사사도회 회원 모집

자격: 개인택시(교구에 성실하게 봉사하실 분/ 예비자 포함)
특전: 수/ 토/ 일 부제 적용
문의: 회장, (010)9116-2587

컴패션 그룹사운드 밥밴드 멤버 모집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이 되어줄 실력 있는 연주자를 모십니다.
부문: 드럼
문의: (010)3810-5599 / (010)9577-7819

202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안마바우처
대구 전지역 대환영
근골격계·신경계·자세교정
053)425-7695~6
38년 전통 약손 이 루카

목,허리,어깨,무릎 통증치료전문
서울에이스통증의학과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 치료 전문
(최신 체외충격파 치료기 도입)
목 / 허리통증 / 오십견 / 무릎관절염 / 스포츠 손상
원장 권 일 치(안드레아)
진료과목 :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동구 아양로 46 [신암동 214-4] 2층 Tel 053-954-7582

헬스텍피아 보청기
HEALTHTECHPIA
청각학 박사(최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공하는 최고의 청각서비스
◆ 무료청력검사 ◆ 무료보청기상담
◆ 무료보청기적합 ◆ 청력재활프로그램
◆ 고성능, 최신형, 고음질 보청기
053)961-2525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우리 부모님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싶다!
인지 재활 중점
마더요양원
MOTHER SANATORIUM
원장 박 동 근(마르첼리노)
이사 이 현 숙(레 지 나)
경산시 강변동로 112 경산역 앞 T. 053)815-9988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흠(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야네스)
심장검진 | 심장 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탑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개원 2주년
척추·관절 및 뇌·신경 클리닉
백 신경외과 의원
뇌졸중,두통,어지럼증,손발저림,진전,요통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골다공증
퇴행성 관절염,류마티스,오십견,근·골격계 질환
원장 백운일(스테파노), 서영준(안드레아)
성당시장네거리 ☎ 053)628-4111